

'김대중 노벨상 기념관' 내일부터 시험운영

목포시, 내달 15일 개관 앞두고 공정률 90%

16일 이회호 여사 방문 공사 관계자 격려

내달 15일 개관을 앞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의 건축공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10일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간다.

목포시는 8일 "오는 16일 이회호 여사가 목포를 방문해 직접 기념관 현장을 둘러보고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률 90%인 내부 전시구조물 공사는 이달 말까지, 영상분야는 내달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CCTV와 출입통제 시스템 등 보안시설 설치와 지장물 철거도 내달

초까지 마무리해 늦어도 10일까지는 모든 공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개관에 맞춰 주차 공간 확보와 방관객 편의를 위해 삼학부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돌입했다.

우선 삼학부두 출입구(정문 사무실 포함)를 이전하고 철도레일을 비롯해 방진 건설 기계, 그물 등을 철거한 데 이어 기념관 맞은편 삼학부두 내에 조성중인 주차장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목포 시립예술단체들도



내달 15일 개관 예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전경.

노벨평화상 기념관 개관기념 창작공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달 14일과 15일 시민문화체육센터 대 공연장에서 펼쳐질 이 공연은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멀티 종합 예술로 승화시킨 한편의 '비크로바 드라마(Visual Cross Drama)'로 별

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은 '평화의 사도, 그 찬란한 귀향'이라는 주제아래 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한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시립국악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연극단 등 시 산하 6개 단체가 모두 참여해 최초로 공동

농어촌 개발 전남 54곳에 5년간 국비 1321억 투입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농어촌 개발 신규 공모사업에 전남에서는 54개소가 선정됐다.

전남도는 이들 지역에 1~5년간 국비 1321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 농어촌 개발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15개소 787억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13개소 402억원, 신규마을 조성사업 4개소 38억원, 창의 아이디어사업 10개소 90억원, 지역역량 강화사업 12개소 4억원 등이다.

선정된 농어촌마을에는 지역특색에 맞게 기능별로 주차장, 다목적센터 건물, 공원 조성 등 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과 특산물가공시설, 공동관매장, 농촌 체험시설 등 소득 창출사업이 추진된다.

지방 및 담장정비, 공원 조성, 가로경관정비 등 경관개선사업과 마을 리

더 양성 교육훈련, 마을 홍보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도 함께 이뤄진다.

전남도는 그동안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49개 읍·면에 읍·면당 70억~100억원씩 모두 7697억원을 지원해 16개 읍·면을 완료하고 33개 읍·면은 현재 추진 중이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92개 권역에 권역당 25억~50억원씩, 모두 3511억원을 지원, 25개 권역을 완료하고 67개 권역은 추진 중이다. 신규 마을 조성사업에도 48지구 764억원을 지원해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또 내년부터 처음 시행할 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관광 섬진마을과 무안 사천리 경관 개선, 해남 구림마을 소망길 조성, 순천 사랑방운영 등 10개 사업을 확정해 한 곳당 14억원을 지원해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학생수 줄어... 함께 추억 만들어요"

보성 검백·문덕·복내·울어초 합동운동회 눈길

보성군 내 과거 조선시대 복성현에 소속돼 있었던 초등학교들이 합동운동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학교는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인근 주민의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운동회의 열기가 식어가지 이 같은 방안을 생각해냈다.

지난 3일 보성군 복내면 인조잔디구장에서 검백초, 문덕초, 복내초, 울어초 등 140여 명의 학생들과 100여 명의 교육가족들이 한데 모

여서 운동회를 열었다.

이들 학교는 지난해에도 보성에 있는 다량체육관에서 운동회를 함께했다.

4개 학교 관리자 협의회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참고해 올해는 실

내가 아닌 운동장을 선택했다.

관광 오리발, 풍선열차, 추억의 공주머니 던지기, 글림의 이어달리기, 학교 대항 이어달리기 등 다채로운 종목을 함께하면서 학생, 학부모 등의 즐거움도 커졌다.

합동운동회를 제안한 울어초 백우현 교장은 "학교마다 학생 수가 30여 명의 소규모 학교여서 개별 학교로는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기 어려웠다"며 "이렇게 많은 학생이 모여서 함께 서로 돕고 선의의

경쟁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직접 천막을 설치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등 과거 복성현 내 같은 학생이라는 연대의식도 높아졌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복내면 파출소는 주변 교통정리와 안전 관리를, 복내농협과 우체국은 간식을 협찬하는 등 지역 기관들도 운동회에 동참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산재예방 결의대회

목포 고용노동지청

목포 고용노동지청(청장 이재준)은 최근 계속되는 전남 서남권지역의 서고성 사망제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한국산업 안전공단 목포출장소에서 산재예방 한마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는 전남 서남권지역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심일터만들기 전남서부지역 추진본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관계자, 현대삼호중공업(주) 등 주요사업장, 관내 제조업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관내 안전보건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탈북미녀와 감동베라이어티쇼!

함께하는 **이웃끼리 만나러 갑니다**

CHANNEL A **매주 일요일 밤 11시**

더웬 물이 좋아

한낮 기온이 26.5도까지 올라가는 더위가 물러든 지난 7일, 여수엑스포해양공원(박람회장)을 찾은 아이들이 바닥 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사이를 뛰어 돌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연소득 1억 부농 만들기' 지자체-대학 손잡다

곡성군-순천대 컨설팅 발족식

올 10개 농가 14명 전문가 지원

연소득 1억원의 '부농' 양상을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이 손을 잡았다. 이들은 역대 소득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소득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수, 전문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곡성군과 순천대는 8일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가소득 '1억 달성'을 위한 부농컨설팅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은 지난해 곡성군과 순천대학이 지역발전과 정보교류, 지역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의 기여자로 체결한 협약 후속사업 중 하나다.

이 컨설팅은 농가소득 7000만원 내외의 잠재고소득 농가를 전문교수 또는 전문가와 일대일 맞춤형으로 경영 진단을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함으로써 1억 소득의 반열에 합류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10개 농가를 대상으로 14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지원에 나서 매달 1회 이상 현장컨설팅을 통해 연말 종합평가 보고회로 성과를 분석한다.

허남석 군수는 "관·학·민이 함께하는 전국최초의 컨설팅으로 2014년까지 역대농 220개 농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곡성농업이 부자농업으로 탈바꿈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완도 해조류박람회 성공기원 잇단 후원

완도금일수산수협

5000만원 상당 비누 협찬

계기로 해조류를 소재로 생산하는 제품들이 널리 알리기 위해 협찬에 나섰다. 완도금일수협도 이날 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람회 조직위는 8일부터 공식 후원 및 협찬 사업자를 모집에 나섰다.

박람회 조직위는 내년 4월11일부터 31일간 열리는 박람회 기간 외국인 3만명을 포함 70만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후원 신청은 올 연말까지 박람회조직위 사무국(061-550-5402)에서 접수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